

‘국토 셀’ 특집 시리즈 ③

국토 품격 제고를 위한 “국토 셀” 특성화 모델: 장성 편백숲 사례

양진홍(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진(국토연구원 연구원)

- 장성 편백숲은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2000년)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대 조림 성공지로 산림휴양·삼림욕·청소년 자연체험 및 학습장소로 각광받고 있음
 - 암환자 60여 명 상주, 주말 방문객 1,500여 명으로 편백숲은 금곡 영화마을과 함께 장성8경 가운데 2경과 8경으로 가볼 만한 관광코스로 손꼽히고 있음
 - 주변 4개 마을에 방문객을 위한 음식과 숙박시설이 건설되고, 일부 귀농이 늘고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음
- “국토에 숲, 나무가 있고 없는 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국토의 품격(品格)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말처럼 녹색성장뿐 아니라 국민건강시대와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서도 숲가꾸기에 나서야 함
 - 산림청에서도 지리산 둘레길(71km)을 비롯해 울진의 금강소나무숲길(21km) 등 2016년까지 약 4,840km의 트레킹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에 만족하지 말고 장성 편백숲을 거울삼아 방치되어 있는 도시 내 산지의 휴양림 조성 및 숲가꾸기사업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협력체계가 필요

《《 국토 품격 제고를 위한 장성 삼나무·편백숲 국토 셀 모델의 시사점 》》

- 국토 특성화 모델은 개별 국토 특성단위(셀)가 저마다의 속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하게 발전하며, 국토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활용하는 선순환체계를 형성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자연(국토)과 인간(지역주민)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국토발전모형
- 장성 편백숲은 광양 청매실 농원, 경주 양동마을에 이어 건강과 역사문화, 경관이 어우러져 녹색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품격 있는 국토 특성단위(셀) 사례

I. 국토 품격과 국토 셀 특성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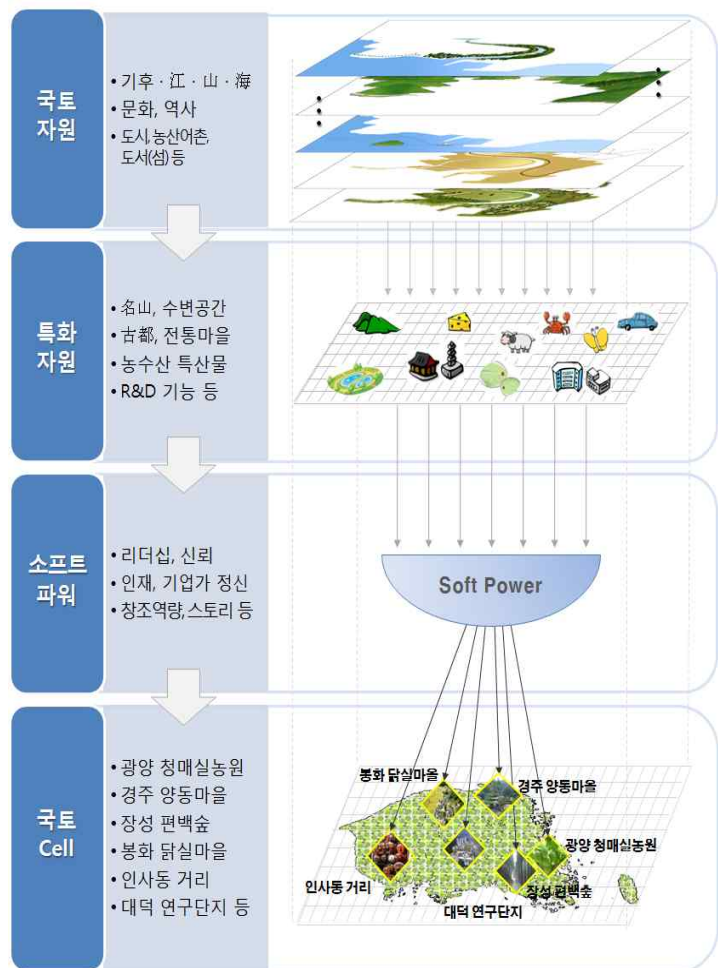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의 개념

- 국토 셀은 국토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이며, 국토는 다양한 기능과 크기를 가진 국토 셀의 조합이라 할 수 있음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개별 국토 셀이 저마다의 속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하게 발전하고 이러한 국토 셀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국토발전모형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에서는 도시 및 SOC 위주의 국토발전과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하는 도농 병행적 국토발전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국토 곳곳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품격 있는 국토로 만들게 함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을 통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소지역 단위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음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소지역 단위의 미시적 발전을 추구하므로 거점, 권역, 발전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 국토발전을 보완할 수 있음
- 국토 셀 특성화 모델은 농산어촌 및 도시, 강·산·바다 등 실제 국민이 일상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국토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택지, 산업단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 위주의 국토발전 보완과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 수요에 대응한 국토관리를 할 수 있음

[그림 1] 국토 셀의 구성요소 및 형성과정



II. 국토 셀 사례: 아름다운 미래의 숲-장성 편백숲

장성 편백숲과 춘원 임종국

● 장성 편백숲의 개요

- 축령산(621.6m) 편백숲은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서삼면 모암리·대덕리·추암리, 북하면 월성리 일대 산에 삼나무, 편백나무가 숲의 바다를 형성
 -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2000년)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됨

[그림 2] 아름다운 미래의 숲 - 장성 편백숲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2000년) 수상 표지판 조선일보 박정원 기자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소개한 장성 편백숲길

자료: 박정원 블로그(<http://blog.chosun.com/pichy91/3890826>)

- 장성 편백숲은 전국 최대 조림 성공지로 고(故) 춘원 임종국 선생의 불굴의 의지와 땀이 서린 곳
 - 6·25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무입목지에 1956년부터 1976년까지 21년간 조림하고 가꾸어 지금은 전국 최대 조림 성공지로 손꼽히고 있음
 - 조림면적은 산 569ha에 253만여 그루의 삼나무, 편백나무 등 식재
 - 임종국 선생의 나무심기 열정은 나무심기를 전 국가적 운동으로 유발하는 촉매역할을 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66년 식산포장(殖産褒章), 1970년 철탑산업훈장, 1972년 5·16 민족상을 수상하게 됨

- 산림청은 지난 2001년 그의 공로를 기려 광릉 국립수목원 내 ‘숲의 명예전당’¹⁾에 업적을 새겨 헌정하였음(임업가에게 최고의 명예를 의미함)
- 조림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임종국 선생은 1987년 작고하여 순창 선영에 묻혔으나 2005년 이장되어 그가 가꾼 전남 장성 축령산 숲에 수목장(樹木葬)으로 안치됨

[그림 3] 故 임종국 선생 추모사업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임종국 선생

축령산 숲에 수목장(樹木葬) 안치

■ 세상은 그를 조림왕(造林王)으로 칭송하고, 군민들은 공덕비를 세워 추모

- ‘조림왕’이라는 칭호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붙여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남다른 학력도 없고, 축적된 재산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네 삶이 가장 곤궁했던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20여 년 동안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황무지와 다름없던 임야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낸 주인공, 춘원(春園) 임종국에게 ‘조림왕’이라는 별칭은 아깝지 않다”라고 임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음

[그림 4] 故 임종국 선생 조림 공적비



자료: 전영우, 2001·4, “조림왕 임종국의 성취와 좌절”. 월간 「산림」.

- 1) 2010년까지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사람은 6명: 국토녹화를 성공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 주요 조림수종의 종자 품질기준을 세운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조림 수종을 개량한 현신규 박사, 장성 축령산을 전국 제일가는 조림 성공지로 만든 임종국 독립가, 태안 천리포의 바닷가 험벗은 산을 일만 종류가 넘는 식물종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바꾸어 놓은 귀화인 민병갈 원장, 국내 최초로 대규모 활엽수 단지 조성 및 기업 이윤을 산림에 투자하여 기업임업의 모델을 제시한 최종현 회장이 헌정됨.

- “장성의 삼나무 편백숲은 인간의 선한 의지와 강한 집념이 국토의 얼굴까지도 변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세상을 떠난 오늘도 말없이 전하고 있다”(전영우 교수의 임종국 선생의 업적에 대한 표현)

편백숲의 조림 및 이용현황

- **축령산(621.6m) 편백숲**은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서삼면 모암리·대덕리·추암리, 북하면 월성리 일대 휴양림 779ha(국유림 240, 사유림 539)
 - 2002년 산림청 소속 국유림으로 편입된 258ha의 산림구성은 천연림 75ha(29%)와 인공림 183ha(71%)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활엽수 75ha(29%), 침엽수 172ha(67%), 혼효림 11ha(4%)로 침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입목축적은 천연림이 101m³, 인공림이 250m³이며 이는 전국 평균 축적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며, 편백·삼나무의 축적이 ha당 261m³, 활엽수는 93m³으로 나타나 편백·삼나무의 울창한 임상을 보임²⁾
 - 세계 유수의 숲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으며, 이곳의 ha당 평균축적은 209m³이고 최대 626m³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임상을 보임³⁾
- 편백숲은 다양한 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산림표본으로 존치**: 산림청 소유의 편백숲은 목재생산이 가능하나 생산은 하지 않음
 - **교육장소**: 전국의 산림전문가는 물론 새롭게 산림녹화 작업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반드시 찾는 ‘조림 성공지 순례 코스’이자, 임업인들의 산림 교육장소
 - **해외교류사업**: 장성군과 합동으로 편백림 내에서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과의 한일 문화교류 친선방문, 독일 산림관계관 현장 방문, 2005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산림청 차장(중국국무원 임업국 부국장) 일행이 편백숲 조성과정에 많은 관심과 찬사를 보냄
 - **문화적 용도**: 그동안 태백산맥을 비롯하여 4편의 영화와 2편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된 금곡마을은 영화촌으로 자리 잡고 있음

2) 전국 평균 축적은 79.2m³/ha이며, 국유림은 103.4m³, 공유림은 82.1m³, 사유림은 70.7m³

3) 인공림의 평균 입목축적(250m³)은 캐나다 120m³, 미국 136m³, 일본 145m³, 독일 268m³, 스위스 337m³, 북한 41m³ 등에 뒤지지 않는 수준임.

- 산림휴양 · 삼림욕 · 청소년 자연체험 및 학습장소: 편백나무가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되면서 주변 4개 마을에 암환자, 방문객 등의 요양 및 휴양림으로서 기능⁴⁾하여 연간 1,400여 회, 3만여 명의 휴양객 방문

■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장성 편백숲을 상징숲으로 지정

- 우리나라 최고뿐만 아니라 ha당 600m³ 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편백숲 육성
- 목재생산과 최적의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성하는 등 공 · 사유림의 경영모델을 제시할 계획

III. 편백숲 조성 및 보전의 성공요인

첫째, 숲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리더십

■ 적지적수(適地適樹): 알맞은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방법 개발

- 1956년 당시 축령산은 황무지나 다름없었으나 편백과 삼나무 등을 능선, 계곡과 습지 등 지형조건에 따라 수종을 달리하여 식재하는 방법 터득
-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으나 양묘사업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식견을 바탕으로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형에 따라 식재

■ 정성 들여 심고 가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

- 조림을 최초로 시작한 때는 1955년으로 그해 구입한 임야 40여ha 중 1ha에 삼나무와 편백 5천 본의 시험재배가 성공하자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고, 장성군 관내 어느 곳이든 삼나무나 편백을 정성만 들여서 심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됨
- 토질과 지형보다도 정성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1956년부터 1976년도까지 21년간 총 569ha의 면적에 253만여 주의 나무를 식재

4)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축령산 편백숲과 강릉 설악산 소나무숲 비교): 피톤치드 농도도 소나무숲이 월평균 m³당 4.5~4.9μg인데 비해 편백숲은 6.7~7.7μg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또 잎에 함유된 피톤치드 함량에서도 편백은 소나무에 비해 3.9배, 잣나무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나라사랑의 또 다른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동기부여: 인촌이 조성한 편백숲이 “Role” 모델이 됨

- 임종국 선생이 나무를 심게 된 동기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일제시대 때 조성한 장성군 덕진리의 울창한 삼나무 편백숲을 보고 조림지를 만들 의욕에 넘쳤고, 대정목 생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나무심기를 시작
- 인촌이 조성한 인근의 삼나무와 편백숲은 임종국 선생에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나라사랑의 또 다른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심어준 교과서
- 국가의 미래가 숲가꾸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양잠업에서 얻은 수익을 양묘장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71년까지 그의 투자금액은 총 7,37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당시 10년 자란 나무 한그루가 1천 원 하던 시절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

■ 우직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강인한 리더십

- 임종국 선생이 전국 최대의 조림지를 조성하기까지 뼈를 깎는 아픔과 애절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신화가 되어가고 있음
- 장성지역에 1968년과 1969년에 걸쳐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이렇게 전한다.

“그때는 가뭄이 하도 극심하여 밭작물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산에 심었던 나무도 말라죽기 시작했다. 임종국 선생은 물지계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물을 길 수 있는 냇가와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물지계를 지고 산을 오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이 돕고 나섰다. 물지계를 지고 죽어가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물을 주던 우직한 행동은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내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물지계를 지어 나르던 임선생 가족의 작업은 주민들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마을 주민들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도 물지계를 젖던 어깨가 온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낸 뿌듯함에 모두가 환한 모습이었다.”

- 박정원 · 전영우, 서부지방산림청 블로그

둘째, 숲의 가치 활용성 증대

■ 대규모 조림과 경관의 다양성, 난대림 수종의 특이성과 산림 교육장

- 임종국 선생은 1956년부터 1976년도까지 21년간 총 569ha의 면적에 253만여 주의 나무를 식재하여 전국 최대의 조림지를 조성
- 대규모 조림지가 성공의 요건은 아니며 오히려 자금압박으로 파산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지만 대규모 조림지의 희소성, 복합적 이용, 수종과 경관의 다양성 등을 제공하게 되어 가계는 파산하였지만 숲은 보존하게 됨
- 이 기간 동안 특히 많이 심은 수종은 삼나무(127ha)와 편백(188ha), 밤나무(80ha), 낙엽송(72.4ha), 리기다소나무(48.9ha) 등이며, 특히 삼나무와 편백을 대단위로 조림하여 난대림수종의 연구와 시험재배, 조림 등 전국의 산림전문가는 물론 새롭게 산림녹화 작업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반드시 찾는 ‘조림 성공지 순례 코스’이자, 미래 임업인들의 산림 교육장소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됨

■ 아름다운 숲길과 영화촬영 등 대중 홍보

- 아름다운 숲길을 포함하고 있는 편백숲은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름다움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됨
- 장성군 출신 거장 임권택 감독에 의해 영화 ‘태백산맥’(1995)이 촬영되면서 영화촬영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1996년 종합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온 영화마을이 금곡리에 개장
- 그 이후부터 이영재 감독의 ‘내 마음의 풍금’(1998), 김수용 감독의 ‘침향’(1999), ‘태왕사신기’(2006) 등 4편의 영화가 촬영되었으며, 드라마 MBC ‘왕초’(1999.4~8월 방영), 8·15특집극 ‘오른손, 왼손’(1999. 8월) 등 2편의 드라마가 촬영되어 영화계는 물론 일반에게 널리 홍보되어 편백숲 보존에 크게 기여하게 됨

[그림 5] 금곡 영화마을 전경(마을 뒤로 편백숲이 보임)



자료: 장성군 홈페이지.

셋째, 트렌드 및 외부 지원 요소

■ 웰빙 트렌드와 정부의 지원

- 정부의 사방사업이 끝난 무렵인 1979년 그동안 후원자였던 박 대통령의 서거와 더불어 재정적인 문제로 임종국 선생의 가게는 사실상 파산하게 되고, 그 후 필생의 사업으로 조성한 모든 산림의 소유권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넘어가게 됨
- 1995년 임권택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에 의해 영화촬영지로 아름다운 편백숲이 널리 알려지고, 지자체의 영화마을 조성 노력과 웰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고, 2000년 아름다운 숲으로 편백숲 선정, 2001년 임종국 선생의 숲의 명예전당 헌정 등이 이어지자 산림청에서도 편백숲에 관심을 표명
- 20002년 산림청에서는 여러 개인들에게 분할되어 편백숲이 별목될 위기에 처하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 지주들을 설득하여 258ha를 매입하고 육림사업 시행
- 국가에서 매입한 이후 육림사업을 전개하여 조림(10ha)과 간벌(331ha), 가지치기(7ha), 풀베기(30ha)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제일의 명품숲으로 가꾸어 학계, 산림 공무원의 학술연구와 견학지로 자리 잡게 됨

IV. 장성 편백숲 조성과정의 시사점

1 숲 기반의 브랜드 가치 창출

- 황폐화된 지역에 숲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문화 경관을 만들고 판매하는 체계 형성
 - 6·25동란으로 황폐화된 무입목지에 1956년부터 1976년까지 21여 년간 조림하고 가꾸어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공 조림지로 변모
 - 축령산의 4~50년생 편백림은 장성8경 가운데 2경, 산 너머 금곡 영화마을은 8경에 선정되어 4개 마을 주민이 숲을 주제로 한 문화경관과 건강, 춘원 임종국선생의 조림과 관련된 전설, 지역의 고인돌과 영화 촬영지를 역사문화관광상품으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판매하고 있음
 - 역사문화경관의 자원요소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자원이 없거나 전쟁으로 황폐화 된 지역에는 인공적·계획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누군가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역사문화경관 만들기)
- 나무심기의 직접적인 목적보다는 트렌드와 부가기능에 주목 필요
 -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시대에 반보 앞선 투자). 대규모 투자나 사업은 여건성숙이 필요하나 그러하지 못함(선각자는 사업에 성공하기 어려움)
 - 다양한 부가적 활용방안을 통해 본래 목적 달성 필요, 조림, 육림을 성공하기 위해 숲의 부가기능인 관광문화 및 휴양기능을 강조할 필요
 - 장성 편백숲 형성시기 구분: 형성시기 및 트렌드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1】 장성 편백숲 형성시기

조림기 (민간)	자연육림 (방치)	숲의 활용 (영화·웰빙)	정부인식 참여 (휴양림, 교육장)
1956~1979	1980~1994	1995~2001	2002~현재
• 21년간 조림 ('56~'76) • 5.16민족상 등 수상 • '79년 후원자 박대통령 서거 • '79년 임종국 선생 병고	• 가계파산 • 조림지 다수 채권자에 분할 • 편백숲에 대한 임학계의 관심 고조 및 재평가 • '87년 임종국 선생 타계	• '95년 태백산맥 등 6편의 영화 및 드라마 촬영 • '00년 편백숲 '아름다운 숲' 선정 • '01년 임종국 선생 숲의 명예전당 헌정	• '02년 편백숲 벌채 위기 • '02년 산림청 조림지 일부 매입 • '05년 임종국 선생 수목장 • 상징숲으로 활용

2 숲 경영 및 수익모델 구축



■ “Role” 모델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필요

- 동기 및 리더십에 있어서 임종국 선생은 인촌 김성수의 숲 조성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국가의 미래가 숲가꾸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양잠업에서 얻은 수익을 양묘장사업에 투자
- 정부의 사방사업과 연계하여 묘목을 납품하고 자체 수입으로 토지 매입 및 나무심기를 진행하였으나, 1970년대 말까지 진행된 정부의 사방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양묘사업도 쇠퇴기에 처하게 됨
- 양묘사업을 수익성 있는 조정사업으로 연계시키지 못했고, 자체의 수익모델 구축이 미흡하였으며, 차입을 통한 경영에 한계

3 숲가꾸기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원구조의 혁신



■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형성에 실패: 민간의 실패와 정부의 성공

- 당초 조립자 임종국은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파트너십 형성에 실패
- 정부의 예산사정, 숲가꾸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개인사업자 단독으로 대규모 숲 조림 추진
- 대기업의 무관심(수익중심 경영)으로 연계 전략 없음
- 정부에서는 민간이 파산한 후 20년이 지난 2002년 편백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여 산지 매입 후 숲가꾸기 추진, 산림청의 상징숲이 됨

■ 지원 및 혁신체계의 미흡

- 정부에서는 포상 이외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으며, 민간의 재정압박을 완화해 주고자 대기업이 산지를 매입하도록 주선하였으나 시기가 너무 늦어 민간의 재정 파탄(1979년)
- 정부에서는 영화촬영지로 활용되는 등 민간의 이용이 늘자 편백숲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벌채위기에 직면해서야 지주를 설득하여 2002년 여러 명의로 산재된 편백숲 부지 매입(토지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42억 원) 및 산림가꾸기사업 추진
- 좋은 아이디어나 공익적 사업이 위협에 처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혁신의 기초

〔그림 6〕 장성 편백숲



자료: 장성군 홈페이지.

-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미래 선도적 사업발굴 및 선행투자 필요
- 숲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공익사업으로 민간의 투자유치 유도과 정부참여 및 지원 동시 추진 필요

4 숲의 부가적 기능 확대 및 고차 산업화



- 숲가꾸기사업은 경제적 기능과 생활 및 휴양기능의 통합모델이 필요
 - 목재생산과 최적의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성 필요
 - 우리의 생활이 휴양 및 리조트와 결합될 수 있도록 장성 편백숲을 거울삼아 도시 내 산림의 휴양림 조성 및 숲가꾸기 필요(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시스템 구축)
- 도시생활에서 오는 각종 질환의 예방·치유, 영성(靈性)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을 가꾸어 가는 공원국토(公園國土) 및 숲 고차산업화 전략 마련 필요

●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양진홍 연구위원(jhyang@krihs.re.kr, 031-380-0161)

●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백경진 연구원(kjpaek@krihs.re.kr, 031-380-0193)

참고문헌

박정원. 2009·4. 장성 편백림 일군 한국의 조림왕 임종국.
서부지방산림청. 2009·5. “장성 편백림을 찾아서!”. 월간 「산림」.
전영우. 2001·4. “조림왕 임종국의 성취와 좌절”. 월간 「산림」.